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다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통해 발전을 꿈꾼다



▶우리 대학 전경

우리 대학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5년 연속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4년 12월까지 시비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에버그린 프로젝트 시즌 2'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부산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게 된 부산테크노파크는 1999년 12월 18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지역 혁신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연계·조정과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혁신 거점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와 같은 산업 주체들이 네트워크와 협업 속에서 기술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개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 기술 혁신 거점 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대변혁의 시기에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선두에서 돌파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산업 속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산·학(지자체-기업-대학) 협력과 함께 맞춤형 인재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산업의 역동성과 지역 기업 혁신의 성과를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작년에 운영한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특화된 분야 중 하나인 영화&영상 분야를 적극 활용해 '임팩트영화예술대학' 교수진의 영화대



▶에버그린 영화제 1기 수료식

학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기장군에 소재한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특화 공연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콘텐츠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입장에서 주민 주도의 관광 활성화에 주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버그린 프로젝트 시즌 2' 프로그램은 주요 수요층인 기장군 지역(계층) 간 문화·복지 불균형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 기술 기반 문화콘텐츠 산학연 협력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 공유 협업 센터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하이라이프와 공동으로 에버그린 에이전시 △에버그린 영화대학 △지역 특화 공연 제작 및 운영 △기장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에버그린 프로젝트 시즌 2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브랜드화로 지역 대학과의 연결고리를 지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콘텐츠 수요자를 넘어 콘텐츠 기획, 개

발에 직접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인 '유지컬 엔터테인먼트' 학과장 오세준 교수는 "에버그린 프로젝트 시즌 2는 기장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취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가장 8경 주제로 지역 특화 공연을 기획해 기장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5년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한 이현동 LINC 3.0 사업단 공유 협업 부센터장은 "우리 대학과 기장군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유 협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선정된 '에버그린 프로젝트 시즌 2' 프로그램은 AI/스마트관광분야 ICC 협의회와 협업해 지자체 연계 공유 협업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균형 발전의 관점으로 지역 대학 육성 지역 대학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다



▶장재국 총장

지난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장재국 총장은 최근 기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은 위기 상황인 지방대 육성에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는 총장들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으로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장재국 총장은 지난 6월 대교협 차원에서 '대학-지역 혁신 태스크포스(TF)'와 '소규모 지방대학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과연 지자체가 고등교육을 담당할 만큼의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부터 세월이 흘러도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할지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크다. 라이즈 체계에 대한 전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올해 말에 바람직한 라이즈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대학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방대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지방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대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자는 정부의 '글로벌 대학 30' 사업 선정에 대해 장 총장은 "먼저 지방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과감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혁신의 상징인 미국 미네르바 대학을 능가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면 전국 대학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문제는 30개 대학만 선정된다는 데 있다. 30개에 속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예산을 더 확보해 글로벌 대학 선정 숫자를 늘리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대의 위기 상황을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실패의 소산이라는 게 장 총장의 생각이다. 장 총장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지방대를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집중 육성해 수도권 대학과 같은 출발선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수도권 우선 발전 정책에 지방이 희생적 역할을 했듯이 이제는 지역 발전에 집중 투자로 지방에 사람을 머물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퀀트형 핀테크 전문 인재를 양성하다

디지털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신기술 인재를 키운다



▶디지털금융 인재 육성 협약식

▶사진 출처 - 부경대학교



▶우리 대학 로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을 가지다



▶LINC 3.0 사업단과 (사)부산기술사회 협약식

우리 대학과 부경대학교는 두 대학 학위를 모두 수여하는 '디지털금융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협약을 맺었다.

두 대학은 지난 3일 첨단 기술인 디지털 금융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 학과인 디지털금융학과 신설을 교육부에 승인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금융학과는 미래 금융 산업을 선도할 '퀀트(QUANT, Quantitative Analyst·전략적 분석가)'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로, 부산이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을 꾀하는 만큼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한다.

'퀀트'란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 점점 어려워져 수학, 통계 및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법칙을 찾아내 투자 모델을 만들거나 금융 시장을 예측하는 역할을 퀀트로 정의한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으로 퀀트펀드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재무금융이론 및 코딩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통계 지식 중심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겸비한 퀀트형 핀테크 전문 인재 육성모델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디지털금융학과와 교육 목표는 금융 지식과 ICT 기초 공학 창의성을 겸비한 ICT-금융 융합 전문 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통섭적 사고력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미래 금융 산업을 선도할 퀀트형 핀테크 전문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재무·금융 이론, 수학·통계 이론 및 데이터 과학·프로그래밍, 불복체인, 빅데이터 및 ICT 금융 기술, 인턴십, 현장실습 등의 교육 과정을 구성해 두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공동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목은 각 대학에 개설하게 되며 학생들은 두 대학을 오가며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한다. 교원은 대학별 4명 이상, 총 8명 이상의 전임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동 학과 신설 운영을 위해 부경대학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과정',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 등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인프라를,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융합·연계 전문 교육 및 학·석사 연계 트랙 등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디지털금융학과 신입생을 각 대학별로 20명씩 선발해 총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두 대학에서 공동으로 '디지털금융공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두 대학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대학은 공동 학과 신설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고 교수진이 직접 학과 설립 과정에 참여했다.

학과 신설 운영을 위해 부경대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과정' 'SW 전문 인재 양성사업' 등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동서대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융합·연계 전공 학·석사 연계 트랙 과정 등을 제안했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순히 물리적 학과 공동 운영을 넘어 실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학과 설립을 구상한 것이다.

또 지난해 6월 양 대학은 BIFC 자본시장역사박물관에서 한국거래소와 디지털금융공과 관련 부산 지역의 전문 인력 육성을 비롯해 연구·협력 과제 지원 및 공동 학술 대회 개최, 대학과 내 혁신 성장 기업 대상 상장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산학 연계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등 부산 지역 발전과 금융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최근 디지털금융학과 공동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세부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이에 두 대학은 공동으로 디지털금융학과를 신설하면서 부산광역시,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지역과 현장 중심의 학습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과 사단법인 부산 기술 사회는 최근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화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한 '산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 및 유종열 사단법인 부산 기술사회 회장 외 각 대학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공동 사업 도모 ▲상호 공동 이익이 되는 사업 협력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및 교류 ▲협장 실습 및 직무 교육에 관한 공동 노력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동시에 사단법인 부산 기술 사회 사무실 입주 및 무료 가족회사 가입(10개 회원사) 협약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단법인 부산 기술사회는 1993년 설립돼 부산·경남지역 30여 개의 회원을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및 환경 등의 보호,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술사 직무를 개발하고

기술사의 기술 수준 향상과 업무수행 능력 증대, 해외 기술 사회와의 교류 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은 대학의 특성화 ICC(XR 콘텐츠 ICC)와 건축공학 과가 중심이 때 사단법인 부산 기술사회 회원 기업들의 'Digital Transformation'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XR 콘텐츠 ICC가 보유한 게임엔진 기반 '디지털 트윈' 제작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모델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기현 단장은 "사단법인 부산 기술사회와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공유·협력 프로그램의 발굴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종열 사단법인 부산 기술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사들의 애로기술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급격하게 발전하는 국내의 건설 기술 트렌드에 기존한 기술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활개치는 웹툰학과!

웹툰학과의 다양한 소식



▶만화책 기증식

우리 대학 웹툰학과가 북 카페 만화책 기증식 및 최첨단 강의실 구축 등을 통해 더 알차고 아늑한 웹툰학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부산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국제e스포츠진흥원과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식은 LINC 3.0 사업단 가족 회사와 함께하는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판 만화책 1,500권을 받아 웹툰학과 북 카페에 전시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웹툰과 만화책을 볼 수 있는 오픈 북 카페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웹툰학과는 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해 UIT 5층에 '웹툰 맞춤형 최첨단 강의실'을 구축했다. 최첨단 강의실은 책걸상을 교체하고 신규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외풍 신디크프로 24 폴 세트 51대, 100인치 강 의용 TV 1대, 70인치 TV 2대 등 최신 기 자재를 갖추며 웹툰학과 수업에 걸맞은 강의실을 구축했다.

또 한국외국어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통해 외풍 신디크 프로 24 폴 세트를 90여 대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웹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등의 교육에 대한 협력은 물론, 교육 업계 최고 수준의 창작

실습실 환경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장비, 인프라,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새롭게 구축된 환경에서 웹툰학과 학생 들은 전공 실기 수업 및 웹툰 공모전, 산업체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웹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려 한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동서대 웹툰학과는 융·복합 시대의 흐름에 맞춰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창작 장비를 갖춘 실습 인프라, 체계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미래 K-웹툰 산업을 선도할 창작 인재를 배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협약을 맺은 한국외국어대 김주형 대표는 "K-콘텐츠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한국이 웹툰 중추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작 인재 발굴과 양성이 뒷받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서 동서대의 과감한 투자와 선도적인 교육 시스템은 앞으로도 문화 산업 성장에 맞춰 최고의 창작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훌륭한 전라이기 때문에 외풍 역시



▶지원 사업 선정 기념식

인프라, 시스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선정 소식이다. 우리 대학 웹툰학과 1학년 재학생들이 울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주관한 '2023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서 무려 4팀이나 선정됐다.

울산콘텐츠코리아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 콘텐츠 창작자의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및 지역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총 21개 팀이 선정됐으며, 우리 대학 웹툰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우·김휘민 학생, 김혜민·조윤경 학생, 박재상·육동호 학생의 기획이 선정돼 경쟁한 콘텐츠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뛰어난 전공 실력을 입증했다.

김연우·김휘민 학생은 울산 고래 기반 서브컬처 스타일 캐릭터 및 O2O 콘텐츠 개발을 기획했다. 김혜민·조윤경 학생은 울산 대화강에 모이는 백로들과 잠미 축제를 함께 만든 스토리텔링 지역 캐릭터를 기반으로 O2O 무빙톤 및 굿즈를 제작했

다. 박재상·육동호 학생은 울산의 상징들을 소재로 한 지역 홍보 및 관광 상품을 제작했다.

김연우 학생은 "울산은 고래가 상징이지만 레드오션이지만, 자료 조사 중 의인화된 서브컬처 고래 캐릭터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콘셉트를 잡았다. 선정돼 기쁘고 지도해 주신 박주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정된 학생들은 울산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을 받아 9월까지 시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휘민 학생은 "콘셉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굿즈와 웹툰을 제작하고, 비주얼 캐릭터로서 활용하고 싶다. 나아가 해외 굿지의 미디어 그룹과 콜라보도 진행하고 싶다"며 말했다.

한편 제작된 학생들의 캐릭터들은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됐으며, LINC 3.0 사업단은 웹툰학과 학생들의 저작권 및 상표 출원 관련, 창업 활동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성과를 자랑하기를 기대한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전국양궁대회, 10점 만점 조준!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양궁 단체전 우승



▶강현중 감독과 한주희, 조민서, 박세은 학생

우리 대학 양궁부가 광주여대에서 개최된 제26회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전국양궁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박세은, 조민서, 한주희 선수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박세은 선수는 50미터 개인 금메달로 2관왕에 올랐다. 또 한주희 선수는 60미터에서 개인 동메달을 차지했다.

단체전 16강전에서는 안동대에 6대 2로 이겨 8강에 진출, 8강에서 순천대에 5대 1로 승리했다. 준결승에서는 계명대를 6대 0으로 승리했으며, 결승전에서는 창원대를 맞아 4대 4 스오프까지 가는 접전이 이어졌으나 박세은, 조민서, 한주희 선수가 각각 10점, 9점, 9점을 쏘며 우승했다.

슛 오프는 승부를 내지 못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양궁 단체전의 경우 공수들이 한 발씩 쏘는 방식이다.

박세은 선수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단체전을 우승해 기쁘다"며 "같이 잘 따라와 준 민서, 주희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고, 우리들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감독님께 금메달로 보답해 드린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양궁부는 2006년 3월 창단 이후 올해로 17번째 공수들을 배출하고 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한주희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박세은 선수의 경우 30m, 50m, 60m, 70m에서 총 1,363점으로 개인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월등한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다. 지난 해 제103회 전국체전 양궁에서 도쿄올림픽 3관왕의 안산 선수를 꺾은 선수인 만큼 기대가 크다.

박세은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호기심에 양궁을 시작했다. 팔다리가 긴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어 유리하며, 스스로도 적성에 맞는 양궁에 열정이 넘친다.

안산 선수와 광주체중, 광주체고 동창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제100회 전국체전 때는 60m에서 안산 선수가 금메달, 박세은 선수가 은메달을 땀고, 개인전에서는 박세은 선수가 금메달, 안산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아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박세은 선수는 "지난 전국체전,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전국양궁대회의 좋은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꼭 국가대표가 돼 다음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양궁부는 2006년 3월 창단 이후 올해로 17번째 공수들을 배출하고 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후쿠오카까지 떠난 창업 CAMP!

2023 동남권 LINC 3.0 노마드 캠프&경진대회 참가



▶캠프&경진대회 현장

우리 대학은 동남권 13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주관한 '2023 동남권 LINC 3.0 창업 노마드 캠프&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됐으며, 1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동남권 13개 대학(▲동서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신라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소속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황기현 사업단장 겸 동남권 LINC 3.0 협의회장이 개최사에서 "올해 처음 해외에서 개최하게 됐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는 경험을 쌓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며, 3박 4일 간의 이색적인 시간이 앞으로 학생들의 삶에 귀한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캠프가 시작했다.

창업 캠프는 국내외 후쿠오카 일원들로 진행됐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킨 후, 일본 현지에서의 설문 조사를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로 삼았다.

일본 규슈대학에서 경진대회가 진행됐는데, 오전에는 창업 아이템을 주제로, 오후에는 창업 마케팅을 주제로 해 13개 대학 참가팀들의 열띤 발표가 진행됐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대학에서는 창업 아이템을 주제로 ▲웹툰학과 송지운, 배예진 학생 ▲게임학과 임성후 학생이 참가했으며, 창업 마케팅을 주제로는 ▲웹툰학과 조윤경, 김혜민 학생 ▲시각디자인전공 박제이, 이수진 학생 ▲인공지능융합학과 장시훈 학생이 참가했으며, 웹툰학과의 송지운, 배예진 학생과 조윤경, 김혜민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웹툰학과 송지운, 배예진 학생의 <메모리 포켓>은 반려동물들 키



우는 511만 가구 중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추억이 담긴 아이템을 제작함으로써 극복과 회복, 건강한 이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했다. 이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재미를 알았고, 오래 준비한 프로젝트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이 다가와 진지하게 창업을 구상할 만큼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단단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웹툰학과 조윤경, 김혜민 학생은 고성세계공룡엑스포로 유명한 경상남도 고성군을 타겟 지역으로 선정해 공룡과 딸기를 합친 캐릭터를 개발하고, 접근성이 높은 카페를 구상했다.

이들은 "LINC 3.0 사업단에서 열린 창업 노마드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 우수한 작품들 사이에서 우수상을 타게 돼 굉장히 기쁩니다"라며, "다른 참가자들의 작품을 보니 얼마

나도 저 사람들의 나이가 됐을 때 저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는, 그리고 이상은 제가 미래를 진지하게, 또 계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회였습니다"라며 수상의 영광을 전했다.

학생들은 타 대학 참가 학생들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디벨롭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웹툰학과와 전폭 지원으로 앞으로 다양한 희소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배리어프리 정신으로 7년을 함께!

7년 연속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최



▶축제 현장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이 시정자미디어재단·부산시정자미디어센터·부산장애인총연합회·동국대·한국영상대 LINC 3.0 사업단·콘텐츠 분야 ICC 협의회와 '2023 장애인미디어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3 부산 세계장애인의대회'와 연계해 열렸으며, "모두를 위한 미디어(Media for all)"라는 가치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본 행사에서는 ▲TV 뉴스·라디오 제작 체험을 위한 장미버스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장미극장 ▲장애인 방송 제작자의 에너지를 듣는 토크 콘서트 장미톡톡 등이 펼쳐졌다.

우리 대학은 꾸준히 배리어프리에 관심을 가지며 무려 7년 연속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했다. 배리어프리란 배리어(Barrier)와 자유(Free)의 합성어로, 신체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대표 문화콘텐츠 특성화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배리어프리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LINC 3.0 사업단 공유 협업 센터는 동국대 LINC 3.0 사업단 등과 협업해 배리

어프리 독립 영화인 <알코올 드림>을 상영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각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게 자막과 수어, 장면 해설 등을 제공했다.

<알코올 드림>은 우리 대학 학생이 2020년 12월에 졸업 작품으로 제작한 영화 중 하나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종종 트러블을 일으키고 헤어지게 되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 개발돼 약을 섭취하고 술을 마시면 몸이 폭발하게 되는 '알코올 드림'이라는 약을 먹게 되며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콘텐츠분야 ICC 협의회는 지난해 6월에 발족한 전국 LINC 3.0 사업단 콘텐츠 분야 ICC 협의체로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사업화를 위해 공유 협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 겸 공유 협업 센터장은 "7년 간 부산의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에 앞장섰고, 문화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매년 장애인 미디어 축제에 제공하고 있다"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꾸준히 보편적 문화 복지 향상에 공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 전국 개봉!

영화과 졸업생 권하정, 김아현 감독의 공동연출작의 쾌거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 언론시사회

우리 대학 영화과 졸업생 권하정(12학년) 감독, 김아현(12학년) 감독이 공동 연출작 영화<듣보인간의 생존신고>가 지난 9월 6일 전국 개봉했다.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는 '제 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 24회 정동진독립영화제', '제 9회 마리플레타 영화제' 진출, 그리고 '제 47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단기간 매진, 그리고 관객상 수상의 쾌거까지 이루어 관객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내던 권하정 감독, 김아현 감독은 친구 구은하 씨와 함께 가수 이승윤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권하정 감독은 영화과를 졸업한 뒤 슬럼프에 빠진다. 어느 날 친구 김아현의 단편영화 상영회 초대장이 온다.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선 권하정 감독은 상영회에 초청된 무명 가수 이승윤의 노래를 만난다. 그리고 크게 위로 받는다. 이승윤의 앨범에 있는 다른 노래까지 다 찾아 들은 권하정 감독은 생각한다.

'나, 이 가수랑 같이 작업해보고 싶어.' 권하정 감독과 김아현 감독, 또 다른 친구 구은하는 무작정 이승윤의 노래 '무명성 지구인'으로 샘플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집 안에 있는 미니어치 소품을 활용해 찍은 뮤직비디오 파일을 USB에 담아 손편지와 함께 공연이 끝난 이승윤에게 건넨다. 집 안에 있는 미니어치 소품을 활용해 찍은 뮤직비디오 파일을 USB에 담아 손편지와 함께 공연이 끝난 이승윤에게 건넨다. 집 안에 있는 미니어치 소품을 활용해 찍은 뮤직비디오 파일을 USB에 담아 손편지와 함께 공연이 끝난 이승윤에게 건넨다.

촬영 시점은 이승윤이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에 출연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전인 2020년 여름쯤이다. 당시 그는 영화 제목 그대로 '듣보' (듣도 보도 못하다) 인간, 즉 무명에 가까웠다. 이승윤은 "처음 뮤직비디오 USB를 받았을 때 공연 날이었다. 일정을 소화하고 밤에 확인했다"며 "당시 비슷한 제안을 받았었다. 다 거절하다가 이들의 제안에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음을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 장면

전하며 관객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권하정, 김아현 감독은 단편영화 제작 경험이 있던 하지만 뮤직비디오 촬영은 한번도 해 본 적 없었다. 촬영 방식부터 모든 게 달랐던 촬영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따랐다고 한다.

권하정 감독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게 힘들었다. 이런 일들을 겪고 개봉까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내가 영화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아현 감독 역시 "항상 희망이 곧 공정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좌절과 슬픔이 있어야 희망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는 마냥 밝달하고 밝은 청춘을 담은 영화는 아니다. 뮤직비디오를 완성한 주인공들은 이승윤에게 위로의 한마디 대신 '우리의 시절 인연은 여기까지'라며 일흔 살쯤 다시 만나자는 웃기면서도 슬픈 말을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승윤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사람을 먼저 알아 봤다'라든지, '이렇게 고생한 보답으로 유

명세가 찾아왔다'는 성취감에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관객들에게 과정의 행복을 펼쳐 보여며 그들의 에너지와 희망을 전해 준다.

권하정 감독은 "처음에는 관객들에게 '재네도 하는데 나라고 못 하겠느냐' 같은 메시지를 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마음이 좋았을 뿐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뤘다고 착각한 것 같기도 하다"며 "그냥 재밌게 영화를 봐 주시고 이따금 이 작품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이들의 도전기는 다양한 관객 중 특이한 20대 관객에게 울림을 줬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새로운 창작물로 재탄생한 영화는 빛나는 청춘들의 마음에 열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는 개봉일인 9월 6일 인디스페이스, 아트하우스 모모, 영화의전당, 모뎀극장, 오오극장 등 독립예술영화관에서 매진 행렬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GV 회차의 경우, 전석 매진이 자주 발생해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임을 알 수 있다.

정나연 수습기자

수험생 100여명이 참가한 오픈캠퍼스

미디어콘텐츠대학, 2023학년도 오픈캠퍼스의 현장



▶오픈캠퍼스(Open Campus) 행사 사진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미디어콘텐츠대학에 지원 예정인 수험생 및 관심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 주례캠퍼스에서 오픈캠퍼스를 실시했다. 수험생 100여 명이 참가해 우리 대학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대학 미디어콘텐츠대학은 문화콘텐츠특성화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연합하여 조직된 대학이다. 기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계열의 방송영상학과, 디지털콘텐츠 계열의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 모두 4개 학과로 구성돼 있다.

4개의 학과 모두 우리 대학이 문화콘텐츠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들로서 2004년 지역대학혁신사업(NURI) 대형 사업단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선정까지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오픈캠퍼스는 전공 이해도와 학과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미디어콘텐츠대학의 4개 학과(방송영상학과,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에서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진로 탐색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를 직접 방문해 전공 체험과 재학생과의 교류 등 학과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픈캠퍼스 오전 1부 행사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 설명회 ▲학과 소개 등 실질적인 입시 정보가 제공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 학과와 대입 전형의 자세한 설명을 전해 들었다. 오후 2부 행사는 ▲학과 체험 ▲시설 투어전공 ▲Q&A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미디어콘텐츠대학의 비전과 직무 중심, 현장실무의 교육을 수험생 및 고교생에게 전달했다. 혁신 기술 트렌드에 앞장서는 미디어콘텐츠대학의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행사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보화를 주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해내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으로 짜여진 교육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최신기술을 접목한 장비 또한 미리 체험해 보는 시간이었다.

미디어콘텐츠대학 이동훈 학장은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문화콘텐츠 아시아 No.1을 향해 도약하는 미디어콘텐츠대학의 강점에 대해 설명하며 동서대학교에서 BDAD(Before Dongseo After Dongseo)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대학은 입시를 앞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하여 매년 오픈 캠퍼스(Open Campus)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나연 수습기자

부산의 풍경, 관광 기념품에 담아내다

시각디자인학과, 코아트와 협업해 패키지 디자인 제작



▶부산 친환경 패키지 제조기업 코아트 '셀러브리: 팝 비치에디션'

우리 대학 디자인학부 학생들과 부산 패키지 전문기업 ㈜코아트,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 작업을 통해 런칭한 브랜드 '셀러브리: (Celebri:)'가 뜨거운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동서대 시각디자인전공 김수화 교수가 이끄는 클래스셀링 수업팀은 지난 2022년부터 부산의 커피 패키지 전문 회사인 코아트와 함께 부산 관광문화상품 브랜드 '셀러브리:티'를 런칭했다. 또한 '셀러브리:티' 원데이 에디션'과 '셀러브리:팝 비치 에디션'을 연달아 개발 및 런칭했다.

브랜드 '셀러브리:티(Celebri: tea)'는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부산의 하루를 아침, 한낮, 오후, 저녁 4가지 시간대로 나눠 부산의 명소를 연결했다. '이 티를 마시는 당신이 바로 셀럽'이라는 스토리를 디자인해 일상에서 힐링을 꿈꾸는 MZ들의 떠나고 싶은 육구를 감각적인 일러스트에 담았다.

부산의 아침은 '급뿔꽃 피어나는 기장'의 일출 모습을, 한낮의 나른함은 영도의 '썩빛 바다 품은 흰여울' 마을의 탁 트인 전망으로 리프레시하고, '북작북작 산

북마을'의 이야기로 오후의 나른함을 풀고, '별빛 가득 해운대의 밤'의 화려한 야경의 풍경과티 초대한다는 스토리 콘셉트를 다채롭고 섬세하게 표현했다.

첫 번째 아이템인 티 분품은 참문을 연상시키는 소박스 속에 레트로한 플라로이드 감성 디자인의 티백 4종을 담아, 가고 싶은 부산의 이미지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디자인이다.

두 번째 아이템인 '부산웰컴키트'는 부산을 행복하게 여행하자는 관광 기념 기프트 박스다. 4가지 시간대별 스토리와 티 이야기가 담긴 볼볼상자 콘셉트를 담았다. 부산의 체험 및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셀러브리:팝 오브 부산' 지도와, 셀러브리:티를 맛볼 수 있는 티 샘플러, 티의 향을 극대화하는 티 부스터, 커피 생두 껍질로 만들어진 친환경 텀블러,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티 카드를 다양하게 담아 부산 관광기념품으로서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셀러브리:티'는 감각적인 패키지외 고급스러운 드립티로 블로그와 카페에서 입소문을 탔다. 그리고 부산디자인진흥원 1



▶클래스셀링 수업

층에서 15일 동안 진행된 팝업스토어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 청년지원 통합 플랫폼인 '청년C제 부산청년플랫폼'의 개편 기념 이벤트 '2022부산청년행복박스'의 구성품으로 선정돼 한 달 만에 약 1,000세트 판매를 돌파했다. '부산웰컴부산키트'도 신규 런칭 후 약 1,000세트 판매를 달성하며 신규매출 약 5,0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지역관광 선물 아이템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 바다를 둘러보고 받은 영감을 입목제 패키지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다대포에서 영감을 받은 '메이플슨셋', 송정 '코랄트웨이브', 송도와 영도의 '레트로선사인', 광안리와 해운대의 '시티로맨스'까지 총 4 종류다. 부산 바다를 주제로 제작한 이미지 위에 지역이름을 디자인했다. 다대포의 낙조와 송정의 자유분방함, 광안리와 해운대의 화려함, 송도와 영도의 명랑함까지 부산 바다의 특징이 잘 담긴 디자인이다.

코아트 최소형 대표는 "지난해 부산에서 하루를 담은 '셀러브리:티(tea)'에 이어 부산의 바다를 담은 '셀러브리:팝 비치에디션'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면서 "MZ세대가 좋아하는 제품군인 데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 기념품으로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입목제 제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클래스셀링 프로그램을 지도한 동서대 디자인대학 김수화 교수는 "학생들은 애항심을 가지고 부산을 품으로 체감하며 영감을 받아 직접 스토리로 담아낸 체험형 브랜드 패키지를 성공시켰다. 앞으로도 동서대 디자인대학의 차별화된 창조력으로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셀러브리:티' 제품은 베이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다. 또한 지역 기념품상,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 일괄할 계획을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코아트는 셀러브리 브랜드로 '2023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에 당선돼 2년간 협업 기업으로 지원받게 됐으며, 현재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에 출품해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나연 수습기자

■ 취업 책 소개

디자인 실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책 그래픽 디자인 경험서

다. 특히 디자인은 더욱 그렇다. 디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경우,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방향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작업에 들어간다면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프로세스'와 '기획'이라는 단계를 늘 중요하다. 디자이너와 기획자는 물론이고, 디자인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 모두가 디자인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선택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답을 찾아가는 방향만은 분명히 제시해 준다. 회사마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다를 수 있지만 큰 맥락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전달한다. 그 다음으로 디자인의 기획을 말하기 전에 디자인 기획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디자인 공부법 또한 설명한 후 디자인 기획의 첫 단계인 콘셉트를 정하는 것부터 폴더 관리를 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한다. 디자인의 용어도 모른다고 이 책을 들기 자신감이 없다면, 디자인의 기초적인 디자인의 용어부터 설명하고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현업에서 뛰고 있는 두 디자이너로서 실무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예외 소드가 담겨 있다. 사수 없는 환경에서의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가 없는 곳에서의 경험, 그 외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경험 등. 그때마다 생각한 건 '대학에서 배운 학문적인 가르침이 아닌, 실무에서 도움 되는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만을 담았다고 한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예비 디자이너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해 주며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깊게 고민하며 쓴 책이다. 디자인을 시작하거나 사회 초년생 디자이너분들에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나연 수습기자

책 속의 풍경 -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바꿀 수 있다면



- 책 제목: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 책 저자: 제임스 도티
- 출판사: 판미동

내가 상상하고 바라는 삶이 현실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상상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을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제임스 도티는 어떤 상상을 했기에 상상이 현실이 됐을까? 그리고 그 상상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 책은 저자인 제임스 도티의 여섯을 적 이야기와 약간의 허구적 사실이 섞인 문학 부분과, 상상이 현실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비문학적으로 풀어낸 부분 2가지로 구성돼 있다.

도티는 아주 어렸을 적 친구를 사귀기 위해 마법을 연습하곤 했다. 예를 들면, 가짜 엄지를 활용한 간단한 마법 같은 것 말이다. 어느 날 사라진 가짜 엄지를 찾는 도중 우연히 마법 용품 판매점에 들어가게 된 도티는 그곳에서 루스라는 한 할머니를 알게 된다.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 특별한 마술 하

나를 도티에게 가르치게 된다. 아무래도 도티에게 특별한 힘이나 연민을 느껴서 그랬을까. 할머니의 마술은 눈속임이 아닌 정말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술이었는데, 그 방법은 뇌와 마음의 힘을 조절해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비법이였다.

할머니가 알려준 마술의 방법은 4단계로, 잠깐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다. 이때 성취하고 싶은 소망과 의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첫 번째 마술을 시작하고, 두 번째 마술을 시작한다. 바로 '마음 길들이기' 단계다. 다른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만트라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한다. 이것은 하루에 20~30분 정도 연습을 해야 한다. 만트라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조차 안 들게끔 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매일 만트라 연습을 하고 준비가 됐다면 본격적인 3, 4번째 단계에 들어간다. 해당 단계에서는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는 과정을 거친 이후, 나의 소망을 상상하는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그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마술에 대한 상세 내용은 책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 마술을 배워가는 도티와 함께 몰입하며 읽을 수 있어서 꽤나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다.

할머니가 알려준 마술을 통해 도티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한다. 어쩌면 마술의 3번째 단계에서 상상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싶다. 자신의 주변 환경이 개선된 이후 도티는 마술의 힘을 깨달으며 끝내 원하던 외대에 입학하게 된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저명한 신경의

과 의사이자, 의료용 기계 '사이버나이프'를 생산하는 만든 '에큐레이'사를 이끄는 기업가로 성공한다. 또한 7,500만 불의 자산을 소유한 부자가 됐다.

하지만 도티는 루스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를 간과하며 방탕하게 살다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는다. 그제야 도티는 마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는 비로소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삶의 고비 때마다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줬던 루스의 마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 또 이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세상에 꺼냈다.

이 책을 읽으며 어느 정도 공감을 많이 했다. 나도 내가 상상하던 것들이 이뤄졌을 때가 있다. 아주 어렸을 적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하고 싶어서 관련된 상상을 많이 했다. 그다음 해에 학교에 오케스트라 부가 개설이 되고, 합창부에 속해 있던 나는 제일 먼저 오케스트라를 접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내가 상상하고 꿈꿨던 것들이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는 신기한 기분도 많이 들었던 때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없는 사람들은 루스의 마법이 말도 안 될 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공감했다. 그리고 내가 좋아 하는 것과 내 생각이 더 확신을 갖게 됐다. 또 루스의 마술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상을 기반으로 한 설명을 보며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깨닫게 됐다.

상상을 실현시켜 보고 싶지 않은가? 특별한 마술이 바로 이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에 들어있다. 특히 명상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더더욱 이 책을 추천한다.

정은영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엘리멘탈



- 영화 제목: 엘리멘탈
- 영화 감독: 피터 손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의 랜이라면 올해 최고의 기대작인 영화 '엘리멘탈'이 역주행과 장기 흥행에 성공하며 700만 명을 넘어섰다. 가을이 오기까지 쏟아지는 대작들과 신작들 사이에서도 개봉 11주 차까지 박스오피스 5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며 2023년 개봉한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디즈니 영화 하면 떠올렸던 겨울왕국 이후 4년 만에 718만 관객을 동원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됐다. 한국인이 특별히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흥행의 이유를 알아보자.

불, 물, 공기, 흙 이렇게 4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탈 시티에서 주인공 '엘버'는 엘리멘탈 시티 외곽인 파이어 타운에 살고 있는 불 원소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힘들게 꾸려온 가게 파이어 플레이스를 물러받고자 오래도록 실력을 쌓아간다.

하지만 불같은 성격 때문에 손님들에게 버림 받을 때가 있는지다. 아버지에게 통 믿음을 주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우리가 만든 무지개

엘버는 하루하루 가게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의 기쁨이 될 날을 기다린다.

어느 날, 가게 중요 행사에서 무례한 손님을 만나 참고 참다 머리끝까지 열 받은 엘버는 지하실로 내려가 거대한 불꽃을 쏟아내며 성질을 부린다. 그 덕택에 지하실 내 파이프가 망가져 구멍이 군데군데 난다. 그 구멍에서 웅결, 물 원소 하나가 튀어나온다. 그는 엘리멘탈 시청 소속으로 반대편 운하에서 수도 검침을 하던 '웨이드'였다.

서로 당황하기도 잠시, 가게 안 수도 시설이 너무 낡은 것을 본 웨이드는 이를 시정에 보고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게는 일주일 내로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엘버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했다. 엘버는 부리나케 웨이드를 뒤따라 간다.

사정을 들은 웨이드는 자신의 상사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한다. 상사는 원래 파이어타운으로 가는 수도는 끊겨있어야 정상이라며, 누수의 원인을 찾으면 폐업을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한다. 과연 둘은 운하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까?

누수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둘은 완전히 다른 서로에게 끌리게 된다.

눈물 많고 정 많은 웨이드는 물 원소라는 점에서 물 흐르듯 유한 성격과 풍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웨이드는 올보다. 다소 멋있게 느껴질 수 있는 캐릭터성이다. 그럼에도 웨이드만의 활력과 섬세한 성격으로 엘버와 관객들의 마음에 점점 다가온다. 엘버는 웨이드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용기와 다정함을 배운다.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둘, 섞일 수 없고, 섞여선 안 되는 둘은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게 된다.

원소들의 사랑이 로맨스가 될 수 있나 생각했다면 원소의 특징을 제대로 구현

한 캐릭터 디자인과 탁월한 애니메이션은 그런 생각을 얹어 준다. 감독은 원소를 의인화하는 것이 아닌 원소 자체가 영상으로 촬영해 참고하는 등 캐릭터 제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사실 불, 물, 흙, 공기는 CG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불같은 것이 아닌 불 자체를 캐릭터에 담아내야 하므로 그 집합을 살리기 위한 감독의 노력과 성과를 엿볼 수 있다.

엘리멘탈 안에는 한국어 이민 가정 2세대인 피터 손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담겨있다.

한국인들이 과거 미국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엘리멘탈 시티 속 불꽃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표현된다. 불의 민족이 이웃들에게 인사를 올릴 때 절을 한다는 점, 엘버 가족의 가게가 우리나라 고깃집 환풍구와 비슷한 장치를 가졌다는 점, 영화의 주된 주제는 정작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고생'이라는 점 등이 한국적인 요소를 드러낸다.

엘리멘탈이 한국적인 요소를 가졌다는 점은, 미국 내에서는 흥행하지 못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던 엘리멘탈을 한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픽사의 대작이 되게 했다.

한 인터뷰에서 피터 손 감독은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했다. 엘리멘탈 영화에서 이뤄지는 엘버와 웨이드의 사랑은 작은 변화이지만 이 둘의 결합이 양극화 왜 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불꽃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감독의 마음일 것 같다. 당신도 엘리멘탈 시티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엘버와 웨이드의 잔잔한 변화를 함께 느껴 보길 바란다.

정나연 수습기자

요즘 건강하시죠?

부모님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 소개



▶상담 중인 의사

▶사진출처 - 코메디닷컴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조심! 치핵

연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실 것 같은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진 모습을 종종 보시신다. 그러나 부모님은 크게 아픈 게 아니면 병원에 잘 가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정작 본인 건강에는 무심한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 부모님께 흔히 발생하는 병의 전조 증상과 예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조심! 허리디스크

40대의 54%가 기타 추간관장애, 즉 허리디스크로 일원한다고 한다.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게 요통인데,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증상이 심해지지만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다. 또 심하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서 걸을 때 허리를 제대로 세우는 게 힘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디스크는 장기간의 운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불편한 자세의 지속,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퇴행,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그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예방법으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조심! 자궁의 평활근증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치핵은 우리나라 50대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많은 이들이 부끄럽고 꺼려지는 마음에 병원 방문을 미루고 있는 해 증상이 악화되는 질병 중 하나다.

치핵은 크게 내치핵과 외치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치핵은 직장과 항문 사이 배변 조절을 돕는 횡문근 부위에서 생긴다. 초기에는 통증이 없지만 크기가 커지며 내치핵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면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항문 안쪽에만 자리하는 1기부터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4기까지 나눌 수 있다. 외치핵은 항문 주변에서 생기는데, 이것이 생기면 항문 근처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 외치핵 안쪽으로 피가 굳은 혈전이 생기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혈전성 외치핵도 있다.

공통적으로 대변을 보고 난 뒤 휴지에 피가 묻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항문 주변이 가렵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핵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다행히 치핵은 암과 관계가 없지만, 항문 출혈 등 치핵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대장암을 비롯한 다른 대장·항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조심! 어깨병변

나이가 들면 관절의 퇴행 역시 자연스럽 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어깨병변으로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증후군이 있다.

흔히 오십견이라고 하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원인 불분명이지만 주로 노화 및 운동 부족과 관련된다. 노화에 따라 어깨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이 퇴행성으로 변화하며 오십견이 생긴다.

증상으로는 관절 운동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거나 팔을 앞으로 드는 게 힘들어진다.

오십견은 증상 발현 기간 및 양상에 따라 3기로 나뉜다.

초기에는 진통소염제, 국소 주사,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나 장기간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까지 진행한다. 어깨 병변의 경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해 방치했다가 수술하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난히 어깨가 아프거나 움직임이 제한되는 느낌이 든다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신경 쓸 때다. 또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적 건강도 중요하다. 부모님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끔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뵙도록 하자. 지금 이 글을 읽은 후 살갑게 식사 여부 등을 여쭙다면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 같다.

자료 출처 :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김규리 기자
Orlarbft1@gmail.com

축제·공연 소식



청소년 협주곡의 밤

- 기간 : 2023. 10. 06(금)
- 장소 : 부산시민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5,000원



부산국제록페스티벌

- 기간 : 2023. 10. 07(토)~10. 08(일)
- 장소 : 삼락생태공원
- 주최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입장료 : 1일권 110,000원 / 2일권 165,000원



부산시민회관 50주년 <위대한 유산>

- 기간 : 2023. 10. 10(화)
- 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동래읍성역사축제

- 기간 : 2023. 10. 13. (금)~10. 15. (일)
- 장소 : 동래읍성 북문일원, 온천천, 온천장 일원
- 주최 : 동래읍성역사축제추진위원회
- 입장료 : 무료



이색 반려견 SUP대회

- 기간 : 2023. 10. 09(월)
- 장소 : 광안리 해수욕장
- 주최 : APP, KAPP
- 입장료 : 무료



부산합창제

- 기간 : 2023. 10. 17(화)~10. 19(목)
- 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무료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기간 : 2023. 10. 19(목)
- 장소 : 부산시민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아름다운 한글에 음악을 더하다

한국어 가사로만 이루어진 노래들



▶아이유-마음

#아름다운 한글 노래

최근 들어 요새 K-POP에서는 영어가 안 섞여 있는 곡을 찾기 힘들다.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한국어 없는 K-POP, 한국어 없는 K-POP, 한국에 없는 엔터테인먼트의 K-pop도 등장하는 등 한국 국적을 완전히 초월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K-POP을 뚜렷한 기준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 10월 한글날을 맞이해 순수 한글 가사로만 이뤄진 아름다운 노래 몇 곡을 소개하려고 한다. 음악은 우리 감정과 미학을 표현하는 강력한 매개체로서, 가사가 그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글 노래들은 그런 면이 돋보이며, 한국어로 된 가사로 우리에게 감동과 여운을 전달한다.

#악동뮤지션-시간과 낙엽

처음으로 소개할 곡은 한국의 대표적인 록 밴드 중 하나인 '악동뮤지션'의 감동적인 노래 중 한 편인 '시간과 낙엽'이다. 한국어로만 가사가 표현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감동과 공감을 자아낸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은 그 안에 담긴 한글 가사로 인해 더욱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아련함과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말고도 '악동뮤지션'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 '오랜날 오랜밤' 등 한국어로 만들어진 노래들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비스커 버스커-여수 밤바다

비스커 버스커의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받고 있다. 그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여수 밤바다'는 '빛꽃 엔딩'과 함께 발표했다. 한글 가사로만 감정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노래다. 이 노래는 어두워진 저녁 하늘에 별들이 모여 빛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사에 담긴 작은 기도와 바다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전해 준다.

노래 속 가사는 여수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리움과 사랑의 노래다. 그들의 음악은 흔하지 않은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



▶박효신-야생화

#아이유-마음

아이유의 음악은 한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꼽히며 그녀의 노래들은 한글 가사로만 감동을 전달하는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마음'은 그 특별한 예시로, 아이유가 팬들에게 선물한 자작곡이다. 한글 가사로 된 아름다운 노래임을 강조한다.

'마음'은 아이유가 콘서트나 음악 방송에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긴 시간이 지나 사람들에게 잊힐 때 본인의 대표곡으로 남았으면'이라 할 만큼 매우 아끼는 곡이다. 그만큼 '마음'은 그 자체로 감성적인 표현과 깊은 감정을 담아낸 아이유의 대표곡 중 하나다. 한글 가사에서 우리는 그녀의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이 노래의 가사에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짧은 곡 길이에 불구하고 가사에 담긴 감정은 여러 상황에서의 마음의 떨림과 설렘, 사랑의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음'은 한글 가사로부터 느껴지는

진솔한 감정들이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전달한다. 사랑하는 무언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작고 예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김필-청춘

이 노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다. 청춘의 아름다움을 슬프고 애잔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필의 목소리로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는 한글로만 표현된 그의 감성을 극대화하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청춘의 그리움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가사 속에서 느껴지는 청춘의 열정과 두려움, 희망과 사랑은 한글로만 이루어진 가사로 지나온 청춘에 대해 좀 더 구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처럼 드라마 시리즈 속 OST들에서 '소녀', '걱정 말아요 그대', '해화동'처럼 한글로 표현된 가사들은 노래를 통해 청춘의 미소와 눈물과 그 안에 담긴 그들만이 걸은 인생의 여정을 드라마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다채롭게 묘사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옛 노래를 재구성해 만든 만큼 현대인들도 친숙하게 들을 수 있다.



▶소녀시대-다시 만난 세계

#박효신-야생화

박효신의 '야생화'는 한국 음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감성적인 발라드다. 그의 뛰어난 보컬 실력과 노래의 감동적인 가사로 유명하다. '야생화'는 한글 가사로 된 감성적인 발라드다. 박효신의 음악적 역량과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이 노래는 2014년 처음 공개된 이후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곡이 발표됐을 때, 박효신은 이 곡이 본인의 순탄하지 못한 지난 인생과 매우 친한 지인을 떠나보내는 여러 힘든 과정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야생화'는 진실된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고독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상징인 야생화를 비유적으로 사용해 다시금 자신을 아름답게 괴워내겠다는 의지를 야생화에 투영해 노래하는 곡이다.

즉, 야생화는 박효신 본인이자 박효신 그 자체다. 박효신의 감정을 극대화한 보컬과 가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깊숙이 다가온다. 자신의 지나온 힘들고 고된 삶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깊고 절실한 것인지 노래한다.

#소녀시대-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걸그룹계로 아이돌 가수 데뷔곡 중 최고로 손꼽히는 명곡이자 소녀시대의 데뷔곡이며, 평론가와 대중들 모두에게 압도적인 호평을 받는 타이틀곡이다.

이에 걸그룹으로서의 소녀시대에게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1990년대생들 사이에서 대중가요로 쓰이기 시작했다. 곡 역시도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려는 내용이기도 하고, 가사가 전부 한국어라 부르기도 애드 아이스크림이 없다.

이처럼 한국어로 불려온 노래로서 한국 음악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당시에도 여러 경쟁한 라이벌 아이돌 그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시대 특유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음악과 더불어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해 신나는 음악이지만, 소녀시대의 데뷔곡이었던 만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말고 헤쳐나가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밝은 분위기인데도 슬픈 느낌의 가사로 인해 듣는 사람에 따라 '다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다양한 음악적 평들이 있다.

김우진 수습기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차이, 어떻게 극복할까?

나부터 실천하는 효의 달 10월



▶공항에 계시는 노인들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키오스크 사진

▷사진출처 - Unsplash



▶노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출처 - Unsplash

우리들은 외출할 때 어떤 곳을 가는가? 맛집과 명소로 소문난 식당에 들러 친구와 밥 한 끼를 하고, 카페에 들러 사진을 찍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 외에 노래방이나 전시회나 숲길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해 인스타그램에 검색하고 방문하기도 한다. 우리의 대부분은 외출할 때 공공장소에 방문해 시간을 보내기보다, 정보를 검색해 소비해야만 하는 곳에 방문해 시간을 보낸다.

혹시 당신은 공공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 공공도서관에 방문하면 노인 분들이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도서관 내의 디지털 자료실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좌석은 노인들이 자리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인천공항에 방문해 보면 대다수의 노인이 장바구니를 바라보며 앉아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구경하고 계시기도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공항에 계시는 노인들에

게 '왜 공항에 오시나요?'라고 묻는다면 '젊은이들이 싫어하잖아'라고 대답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령화 시대 속에서 젊은 층과 노인층이 조화롭게 모여 한 공간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익숙하지 않은 정보검색

최근에는 미디어 상용화로 인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사회 모습이 나타난다. 요즘은 종이보다 화면 스크린을 자주 보게 된다. 가게 매장 대부분은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어, 직접 말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화면 스크린에 직접 터치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필기를 함께 있어서도, 노트에 필기하는 것보다 아이패드와 같은 화면을 이용하는 양상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또 SNS 사용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적인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유

용한 정보와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인한 정보 추천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장년층 세대부터 노인층까지는 이러한 사용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층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급박한 사회 변화와 발달을 따라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소통 문제

각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와 단어의 방식도 다르다. 이 점이 소통에 있어 불편한 점을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할 때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로 인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소통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급박한 사회 성장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MZ 세대들은 집단주의 가치관보다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차이 때문에 소통할 때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성세대부터는 젊은 층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젊은 층은 기성세대부터 그 이상의 세대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 차이

우리나라가 빠른 사회 성장을 겪어서 세대 차이가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또 생각해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세대마다 새롭게 변화한다. 세대 차이는 현재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이들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기원전 425년경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어쩌면 세대 차이는 사회 성장과 변화에 따른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나부터 해볼까?

이러한 세대 차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앞서 말한 키오스크 사용이나,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노인층에겐 익숙하지 않은 기기 사용법을 친절히 도와드리는 것이다. 또 정보 사용에 익숙치 않은 노인분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고 먼저 도와드리는 태도

를 취해보는 건 어떨까. 두 번째로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과 소통하는 그 상황에서 당장은 곧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발짝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자.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이다.

어쨌거나 소통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하며 매일 하는 요소다. 그들도 20대였을 때엔 이해하기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우리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그들이 살아온 영점의 시간을 한순간에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또한 우리를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보자. 친절은 되돌아오기도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매일일보 남태현 교수 정은영 수습기자



엄광산 맑은 소리

무더운 여름의 막이 내리고 가을이 오는 요즘이다. 개강 후 학교는 바쁘고 활기찬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방학 동안 난 여유를 부리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다. 다시 시간표에 맞춰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은 않았다. 아마 많은 학생이 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내가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위해 정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읽는 누군가도 이걸 쓰고 있는 나도 목표가 있다. 목표라는 것은 크거나 작을 수 있으며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침 8시에 눈을 뜨는 것, 또는 머리를 조금 더 기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목표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내 목표도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수업에 최선을 다하며 무사히 학교를 졸업해 내가 지망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 내 목표였다. 누군가에게 시한을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다들 같은 피이기 때문에 이는 친구들이 많다. 서로 어렵다거나 피곤하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끝까지 수업에 집중한다. 힘들어도 자신이 맡은 바를 끝까지 하는 멋있는 친구들이다. 친구들 한 명, 한 명, 본인들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정진해 나간다. 여행을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한 후 수업을 들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건강해지기 위해 좋아하던 음식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과 건강한 음식만을 먹는 친구도 있다. 공부라는 학생의 목표도, 본인의 개인적인 목표도 이뤄가고 있다. 그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까에서 본 나는 더 잘 안다. 존경스러웠다.

존경이란 단어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존경이란 건 멀리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가니 많은 게 달라져 보였다.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때도 그저 공부에 집중하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교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목표가 있으셨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수업 시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를 낮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올해는 다양한 공연을 자주 볼 기회가 많았다. 자리가 좋아 공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공연은 늘 볼 때마다 새롭고 재밌었지만 내게 더 크게 와 닿았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게까지 빛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로 가까이서 본 그들은 찬란하게 빛이 났고 존경스러웠다. 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일 정도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사회는 차갑다고 느껴졌다. 현실의 벽은 감히 내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나를 바꾸는 존경

신더은(치위생학과·2)

대회에서 수상을 몇 차례 한 적은 있지만 그만큼 떨어질 때도 많았다.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진 시간과 노력을 모두 쏟아부을 용기는 없었다. 확실치 않은 재능으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도 없었을뿐더러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 사람과 어울리고 돕는 걸 좋아하는 난 지금의 전공도 충분히 만족하고 뿌듯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해야 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었다. 내 주위에 본인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동기들의 모습,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할 때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답답하지 않은 충동적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이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이런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하지만 확실하고 강인하게 살기로 했다. 내 말은 바를 다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모른 척하지 않기로. 언젠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해 왔구나 하고 뿌듯하도록 말이다.

찾기 힘들다면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내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지지에 쓸 부모님이 있다. 생각보다 너무도 가까이 있어 않은가?

이제 차츰 한 칸씩 먼 곳에서 찾아본다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느리게 존경은 더 나은 나 자신과 우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죽비소리

존경의 또 다른 말

제영서(일본어학과·1)

존경이란 단어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잠시 생각이 잠기게끔 만든다. 각자의 위인, 영웅에게 표하는 경의는 경중을 가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같은 구절이지만 잠시나마 직접 보고 느꼈던 한 사람의 인상에 대한 존경을 담아 글을 적고자 한다.

그 이름은 제정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나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초등학교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제사상에 사진이 올라오고 모두가 통곡하는 소리를 냈지만, 난 그저 그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산에 올라가는 상상만 했다. 텅텅거리는 오토바이와 잠랑거리는 악수들통,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느껴지는 바람. 어릴 적 손주와 하루 종일 놀아 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친구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서 지내던 어느 날 현충일을 맞아 학교에서 급지가 대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호국보훈.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난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6.25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임을 알았다.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전하셨는데 적군 이 손 총탄이 허벅지를 찔고 복부를 관통해 치명상을 입으셨다. 다행히 후방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후유증으로 전쟁 PTSD를 겪으셨다고 한다.

어린 나는 말로만 들던 참전 용사가 우리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눈을 반짝이며 다른 것도 들러 달라 때를 썼다. 그 이후는 용사와 영웅이 아닌 가장이자

한 아버지로서의 이야기였지만 나에게겐 무엇보다 존경이 어울릴 만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렸다.

할아버지는 고성의 시골에서 사셨다. 소학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중학교는 집이 가난해 등록금이 없어 다니지 못하셨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바엔 도시에서 일을 찾겠다고 무작정 부산으로 가셨다. 오만한가지를 일을 전전하시다 위생회사에 취직하여 지계를 메고 지금의 분노수거처의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들었다.

그렇게 힘든 정춘을 보내시다 할머니를 만나고 그동안 모은 돈과 함께 은퇴해 자식 5명의 아버지가 되셨다. 은퇴한 몸으로 아파트 경비원 일까지 하셨을 정도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막내였던 아버지의 대학교 등록금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었다.

아버지는 당시를 회고하며 할아버지의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다. 다소 엄하셨지만 정이 많으셨고 할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주변엔 없었고 밉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께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온 것이 후회되지는 않지만 아쉬우셨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한다. 가족에게 다 소 얹었던 성격은 아마 자신처럼 원치 않은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가득 채워진 원고지 통령이는 축이 다른 글자와 함께 한 장의 상장으로 되돌아 왔고 며칠 후 나는 한껏 가벼워

진 종이를 할아버지의 제사상 위에 놓았다. 그때의 감정은 신기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는데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몸을 떨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지만 아마 이게 내 마음속에서 할아버지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를 점차 잊어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제대하니 일상 속에서 할아버지 존재를 떠올리는 것조차 못했다. 하지만 가을을 통해서 혹은 이런 글 쓰기를 통해 다시금 상기할 때마다 내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삶에 대한 성실성, 가족에 대한 책임감, 무엇보다 국가에 더 이바지하지 못해 부끄럽다면서 헌충원 안장을 거절하시고 고향 땅에 묻고 싶으하신 지조는 나를 더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내가 할아버지의 삶을 살았다면 감히 할아버지의 선택을 따라 할 수 있었을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 할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게기가 됐다. 물론 상상에서 그치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의미가 남을 것이다. 살아온 삶에 영향을 줬고, 살아갈 삶에 영향을 줄 것이고,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존경한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 없다.

존경은 공경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말로도 사용된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삶의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그를 추월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다.

이달의 명언

- 건강과 명망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 조셉 에디슨
-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 토머스 제퍼슨
- 건강한 육은 정신의 전당이고, 병든 육은 감옥이다.
- 프랜시스 베이컨

네 컷 만화

변화의 시작



또 다른 나를 만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목회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나와 너' 그리고 '영원한 너' 에이브러햄 해럴드 매슬로우의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중 '존중 욕구(Esteem Needs)'가 있다고 했다. 이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로 봤다는 것은 존중 욕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존중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티미(τιμή/time)다. '티미'라는 단어는 '금전적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란 의미가 있다.

존중의 또 다른 정의로는 '진가를 인정함', '중시', '우호적 대우', '존경' 등이

나와 영원한 너, 존중과 참된 관계의 길

있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인데, '수증기처럼 흔하고 가볍고 공방 없이는 것'이란 그리스어의 의미가 있다. 곧 경멸은 '중요시하지 않다',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

사상가 마르틴 루터는 세상에는 '나와 너(I-You)'의 관계와 '나와 그것(I-It)'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참다운 삶을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나와 그것'은 인간을 물건화 하는 것이고, '나와 너' 곧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참다운 관계를 맺은 것이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통해 배워 보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셨다가 한 로마 장교를 알게 된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백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으로 당시 중증으로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 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다. 그의 하인이란 식민지 나라의 이방인 노예인데 노예라는 신

분은 당시로서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단한 로마의 백부장이 병든 이방인 노예를 고쳐 달라고 예수께 나아가 간청을 했다.

당시 분사회적 통념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할 필요도 없는 존중을 한 것이다. 그가 직접 예수를 찾아가지는 않고 대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의 부탁으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지도층들은 피식민지 로마 군인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유대 지도층은 유대사회 체제를 흔들려는 예수를 만나기를 꺼려했다. 그런데 예수를 찾아가는 장로들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정한다. 회당을 지어 준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을 사랑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이다.

부부의 말을 빌리지만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던 로마의 군인 장교가 식민지 국가의 유대인 장로로 노예를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존중할 때 오해와 의심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은 피식민지 국가의 군 장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 하인의 병이 낫기를 간구할 즈음엔 유대인들이 그를 존중했고, 참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상태였다. 부부는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연속한 관계속에서 이뤄지는 진솔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오해와 의심을 받고 있던 백부장이라면 그는 유대인 장로들, 하인과 진솔한 대화를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짐작이 되기도 한다.

부부는 모든 만남의 연장선은 '영원한 너(하나님)'에게 향한다고 말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를 그대로 보여 준다. 식민지 민족을 사랑하며 심지어 노예까지 소중히 여긴 그는 결국 예수를 만나기에 이른다. 부부에 따르면 예수는 '영원한 너'이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만일 백부장이 노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

수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장로들이 예수께 전한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동행하기 시작해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한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접촉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접촉하면 부정한 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백부장은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전한다. 부부가 말한 것처럼 백부장이 사람을 물건화하지 않고 참된 만남을 가짐으로 '나와 너'의 연장선인 '영원한 너(하나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나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나' (마가복음 9: 36-37)

사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책 읽지 않는 요즘 세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우리가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농경문화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이아말로 책 읽기에 너무나도 좋은 계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혹자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 이유를 날씨 때문이라고 말하곤 한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앉아서 책을 읽기에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을에는 인간의 호르몬 분비가 줄어 들기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져 책을 읽기가 매우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일까? 오히려 햇살 따뜻하고 자연의 내음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봄이든지, 추운 날씨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따뜻한 난로 앞에서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겨울은 왜 제쳐두고 가을이 독서의 계절로 선정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감출 수 없었다.

혹자는 가을을 보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출판업계에서 가을은 봄과 더불어 대표적인 '비수기'라고 한다. 출판 유통업계 종사자들 역시 입을 모아 가을은 도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의외로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여름이나 겨울이 가장 활발했다고 하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일이다.

이 말은 곧 덥거나 추운 날씨에 책이 잘 팔리고 읽힌다는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날씨 때문이라고 말한다.

날씨가 좋은 날보다 날씨가 매우 덥거나 추운 날에 책을 더 많이 찾는다. 이는 사실히 드러나게 된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오는 실내를 찾게 된다.

이는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경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잘 나와 시원한 공간 가운데 책을 읽거나 사게 되고,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와 더운 공간 가운데 책을 읽거나 사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날씨가 좋은 경우는 산책을 하거

나 다른 여가활동을 보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비교적 책을 읽거나 사는 횟수가 적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 세대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종이책 독서율은 10년 동안 약 20퍼센트나 감소했다. 물론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해 종이책을 읽는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또 여러 매체의 등장으로 책으로 읽는 지식보다 동영상과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 얻는 지식이 더 편하고 더 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정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책들은 너무나도 많다. 필자도 책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때 책과 관련된 이야기, 책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는 등 여러모로 쓸모가 많음을 느낀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잠깐 내려두고 책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동서만평

글·그림 김은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 학생 인터뷰 - 경찰행정학과 홍승철

12명의 경찰합격생을 낸 경찰행정학과

교정직렬 특채로 합격한 홍승철 학생과의 만남



▶홍승철 학생



▶홍승철 학생의 공무원증

하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올해 경찰행정학과에서 자랑스러운 12명의 합격생을 배출해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습전략과 꿀팁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홍승철입니다.

Q. 이번에 동서대학교 경찰학과에 합격생이 12명이나 된다고 들었어요. 학생분은 교정직 공무원 특채로 합격하셨는데 가족분이나 친구분들 주변 반응이 어떠셨어요?

A. 이번 연도에 많은 합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자 중에 제가 있는 게 자랑스럽네요. 오랜 기간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도 다들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맙고 특히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Q. 시험 공부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하루에 공부는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경찰 준비를 하다가 교정 특채 공고를 보고 바로 전환한 스타일이예요. 형사소송법은 이미 고득점을 예상했어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다만 교정직 형사소송법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수사, 증거 파트 말고 모든 범위를 다루는 부분이라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교정특채는 형사소송법 개론, 교정학개론 2과목이라 3개월 잡고 교정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공부는 12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Q.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혼자서 공부할 하면 잘 안되는 스타일이라 경찰행정학과에서 운영하는 고시반을 신청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석 체크를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훨씬 집중이 잘 된 것 같아요.

Q. 나만의 학습 전략이나 방법 같은 게 있다면요?

A. 거의 모든 공시생분들은 기본, 심화, 기출, 모의고사, 파이널 순으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서보다는 기출과 모의고사를 위주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핵심 요약과 기출을 계속 돌리면서 하루에 모의고사를 5회분을 계속 풀었어요. 그러니 문제에 대한 감도 더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타이머를 재고 풀었을 때 빠르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필기시험 치기 한 달 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시험을 2년 준비했는데 타 직렬로 넘어가서 시험을 친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집중하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긴 기간의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극복하신 방법이 있으실까요?

A.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오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잡생각이 사라지니까 좋더라고요. 공부 끝나면 운동장을 뛰면서 잡생각을 떨쳐냈습니다.

Q.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감회가 어떠셨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으실까요?

A. 일단 기속사에서 필기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고시반에 올라가서 교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필기에 합격했는지 최종 합격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지 않고 면접 시험까지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Q. 체력 시험 준비는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A. 교정직렬 체력 시험은 타 직렬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기본 체력이 되어있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 기준에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합격한 동기가 후배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들 경찰이라는 꿈을 위해 정진하고 목표를 성취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 또한 경찰행정학과 한 학생으로서 모든 경시생분들을 응원할게요!
정나연 수습기자

■ 학생 인터뷰 - 2023 Reddot Awards 수상 김상희

해외 공모전, 준비 해봤어?

2023 독일 Reddot Awards 공모전 수상



▶광고홍보학과 2학번 김상희 학생



▶공모전 출품 영상 속 사진

공고를 전공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상해 보고 싶은 '2023 독일 Reddot Awards'. 수상을 목표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어떤 노력들이 수상까지 이끌게 했을까. 이번 공모전 수상자인 김상희 학생을 인터뷰 해봤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김상희입니다.

Q. 이번에 수상한 팀은 어떻게 구성됐으며,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A. 먼저 저희 팀은 '창의적문제해결'이라는 광고홍보학과 2학년 전공 수업을 통해 해외 공모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팀 구성은 친했던 동기를 5명에서 먼저 팀을 이뤘는데요. 이후 진행 과정에서 디자인 분야는 저희끼리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디자인과 한분을 추가 섭외해 총 6명에서 출품을 했습니다. 저는 팀에서 영상 편집과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Q. 광고 전공자들에게 2023 Reddot Awards 공모전이 꽤 큰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소감이 어떠셨나요?

A. 솔직히 말하면 출품할 때까지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받는 공모전인지 알기에, 첫 해외 공모전을 준비하는 저희로서는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해당 작품을 준비할 당시 저희는 2학년이었기에 국내 공모전 경험도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도 '수상'이 목표가 아닌, '출품'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 나왔습니다.

Q. 이번 공모전 영상 속 해당 제품은 어떻게 영감을 받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 종강을 앞둔 12월까지 아이디어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날도 교수님께 아이디어를 피쳐 맞고 나와서 큰일이었어요. 문득 제가 '아기 울음소리'가 패턴이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찾게 됐고, 그때 다른 팀원이 '근대 시각장애인 부모님은 그걸 못 들으시잖아', '그럼 울음소리를 알려 주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세스까지 발전했어요. 이후 곧장 교수님을 찾아가 아이디어 픽스를 받았습니. 굉장히 '만화 같은 날'이었어요.

Q. 광고 영상 촬영을 할 때 배우 섭외와 촬영 등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A. 영상 같은 경우 영상 소스, 자체 촬영,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총 3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영상 촬영 시 영아와 부모 역할이 필요했는데 현실적으로 영아를 섭외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 소스를 활용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 영상 속 수화 장면은 실제 '부산 놀이인 협회'에서 정각장애인 부모님 두 분, 수화 통역사 한 분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조원이 직접 촬영 모델을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방학 기간이다 보니 캡스톤 지원에 한계가 있어 최소한의 제작비로 진행했어요.

Q. 광고에 삽입된 영어 자막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됐나요?

A. 해당 영상은 세계 각국의 현지인들

이 보기 때문에 번역기 사용 시, 어색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학과 선배 지인분이 영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영어 자막 컨퍼를 부탁 드렸습니다.

Q. 영상에 나온 그래픽이나 디자인 기법 등은 어떻게 제작 됐나요?

A. 해당 부분 같은 경우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의 김동형님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콘은 일러스트로, 그래픽은 에프터이펙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아마 이분이 없었더라면 저희 영상이 끝까지 제작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간단하게 나온 아이콘 같지만 수십 차례의 변경 끝에 확정 됐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라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2023 독일 Reddot Awards의 수상을 통해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 수상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건 '노력하면 안 될 건 없다'입니다. 1분이 조금 넘는 영상을 수십 차례 고치고 또 고쳐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그걸 이겨내고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은 거잖아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부분은 '신한 영향력'이었는데요. 저희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싶어요.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 준 은지, 호정, 지원, 한비, 동형님께 모두 고맙고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정은영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 이야기 - 치즈



▶치즈

▷사진 출처 - LG케미토피아

허누카
허누카에 관한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누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고해가 전통적으로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는 마카베서를 참고해야 한다. 12월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각종 요리 잡지나 인터넷에 일제히 허누카 음식과 조리법이 소개되곤 한다. 허누카에 유대

인들이 먹는 음식은 다양하지만 다른 명절에 비해 비교적 소박하고 단순하다. 가정주부들이 허누카 식탁에 올리는 대표적인 메뉴로는 치즈와 팬케이크, 그리고 도넛이 있다.
빛의 축제
유대인들이 허누카, 성전 불연일을 빛의 축제라고 부르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대 마카베가 사바

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다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성전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기름은 대제사장이 직접 검사한 것이어야 해서 닦지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메노라 정자의 불을 켜는 했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기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드레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덕분에 제사장들은 무사히 성전을 정화할 수 있었고, 필요한 기름 역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은 탈무드의 일부인 게 마라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 기적 이야기는 허누카가 여섯 번의 축제이고 여드레 동안 지켜져야 하는지 알려 준다.

치즈요리를 먹게 된 이유

허누카에 치즈를 먹는 전통이 생겨난 것은 주전6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유대서의 주인공 때문이다. 아시리아의 국왕 느부갓네살의 지시를 받은 홀로페르네스의 대군은 대항하는 여러 민족을 굴복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도시 베를리아까지 포위해 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군대에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모가 끊긴 채 고립되고 말았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며칠 안에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시리아에 항복하기로 결의하고 말았다. 이때 아름답고 부유한 미망인 유다이 주민을 설득해서 항복을 미루게 하고 하인과 함께 적진으로 떠

났다. 적진을 찾아가 유다이 병사들에게 지역을 점령할 비책을 알려주겠다고 홀로페르네스에게 접근한다. 그럴듯한 말에 넘어간 홀로페르네스는 유다이 민고 자기 진영에 머무르도록 허락했다. 방심한 홀로페르네스는 연회를 열고 유다이 민고만 남아있었는데, 이때 유다이 칼로 그의 목을 잘라서 곡식자루에 담아 적진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자 아시리아 군대는 막사를 찾아갔지만, 목이 잘린 장군을 보고 달아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이 홀로페르네스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먼저 치즈를 먹게 했다고 믿고 있다.

치즈를 먹어서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해서 갈로 목을 베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요즈음도 허누카에 치즈요리를 즐겨 먹는다.

허누카 팬케이크

허누카에는 감자로 만든 팬케이크 '라트케스'와 켈리로 만든 도넛인 '수프가니요트' 역시 인기 있는 메뉴이다. 특히 동유럽과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라트케스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리브 기름으로 굽고 튀기는 팬케이크와 도넛은 허누카의 기적을 상징하는 음식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카베가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기름이 부족했지만 여드레 동안 기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기념해서 불과 올리브기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얇고 동글게 부쳐 먹는 전병과 비슷하게 생긴 라트케스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 먹는 시간도 짧은 간단한 요리이다. 잘게 다진 감자와 양파와 달걀, 그리고 물과 밀가루만으로 만든 빵인 마짜를 섞어서 팬케이크 모양으로 만들어 올리브기름에 튀긴다. 유대인들은 바삭하게 구운 감자 팬케이크를 크림이나 사과로 만든 소스에 찍어서 먹는데 약간 짭짤하고 고소하다. 모양은 평범하지만 맛은 그렇게 느끼하지 않고 달백하다.

허누카 라트케스

허누카 축제의 기원과 관련된 일화에는 빛과 올리브기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허누카가 돌아오면 기름에 튀긴 음식을 준비한다. 라트케스(감자 팬케이크)와 수프가니요트(켈리로 만든 도넛)가 가장 대표적인 허누카 음식이다. 특별한 기술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음식인 허누카 라트케스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가져왔다. 주요 재료로는 감자 큰것1개, 양파 작은 것 1개, 쪽파 한줌, 달걀 1개, 전분 1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 올리브기름이 필요하다. 또한 라트케스와 곁들여 먹을

소스 재료로는 사과 1개, 레몬즙, 흑설탕 1큰술, 물 1/3-1/2컵, 시나몬 파우더와 넉넉 파우더 약간 그리고 클로브 파우더 약간이 필요하다.

만드는 과정은 이렇하다. 감자, 양파는 아주 가능하게 썰고 양파는 다져놓는다. 다음으로 쪽파를 다지듯 썰어 두고 감자와 양파, 쪽파에 달걀 푼 것, 전분가루와 소금, 후추를 모두 넣고서 잘 섞는다. 그리고 올리브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노릇하게 부쳐낸다. 소스는 사과를 잘게 썰고 나서 준비된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서 사과가 물러질 때까지 불을 다스리면서 조리한다. 다음으로 소스재료를 모두 넣고 만들어 둔 라트케스와 함께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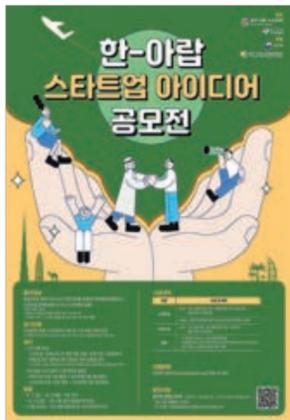
수프가니요트

수프가니요트는 구멍이 없는 도넛의 일종으로서 감자 전병처럼 역시 올리브기름에 튀겨서 만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포춘 쿠키처럼 성경구절을 도넛 안에 넣고 튀겨내서 이웃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선물을 주기도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라트케스와 수프가니요트를 같이 허누카 시즌이 아니라도 패스트푸드처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지 맛볼 수 있다.

자료출처 :

맛있는 성경이야기
예수님은 뭘 먹고 살았을까
사론의 꽃-네이버 블로그
김유진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3.10.9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아이디어·창업·네이밍



- KOREN 대학생 기자단 7기 모집
- 접수기간 : ~23.10.9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문학·예술



- 메타툰 스튜디오 여성향 웹툰&웹소설 공모전
- 접수기간 : ~23.10.10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웹툰·문학



- 밀착 관리로 기업이 주목하는 개발자 양성 과정
- 접수기간 : ~23.10.12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IT·공학



- 제14회 부산평화영화제 BPFF 자원활동가 모집
- 접수기간 : ~23.10.12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기타(예체능)



- 문화기부운동 플랫폼 홍보 창작 공모전
- 접수기간 : ~23.10.15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아이디어·창작·홍보



- 2023년 제3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3.10.16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아이디어·대회



- 아트인사이트 에디터 30기
- 접수기간 : ~23.10.22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예술·웹툰·그림



- 공기업 합격 자소서 완성 강의&자료 무료 배포 이벤트
- 접수기간 : ~23.10.31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IT



- 2023년 하반기 통계데이터센터 이용·활용 수기 공모전
- 접수기간 : ~23.11.17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통계·데이터



- [고용노동부] 23년 미래내일일경험 인턴십 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 ~23.12.31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마케팅·경영



- 제8회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 접수기간 : ~23.12.31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아이디어·마케팅

내 손으로 찍은 동서대학교!

우리 대학의 풍경 사진을 찍어 제보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음 달 신문 1면~3면에 제보해 주신 사진들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소중한 경험을 동서대학보를 통해 즐겨 보세요.

예시) 우리 대학 풍경, 학교에 사는 고양이 등

- * 제보하고 싶은 사진은 Ortarb1@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 * 당첨자 발표는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발간되는 192호(11월호) 신문을 확인해 주세요.
- * 신문에는 사진과 함께 제보해 준 학생의 학과,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